

구마가와주쿠: 가민초

구마가와주쿠는 와카사 지역과 수도 교토를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인 와카사카이도를 따라 물자 운송이 활발해지면서 번성한 역참마을이었습니다. 역사가 깊은 구마가와주쿠는 가민초, 나칸초, 시몬초의 3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민초

가민초는 교토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며 여행자들에게 오바마 항구로 향하는 입구이자 교토로 떠나는 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와카사의 옛 표현에는 ‘교토가 멀다고는 하나 18 리(약 72km)’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거리는 경험 많은 운반꾼들이라면 하루 만에 답파할 수 있었습니다.

역참마을 입구에는 이 길을 감시하는 구마가와 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 주재하던 정부 관리들이 여행허가증을 검사하고 운송 물품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번소 근처에는 화재와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신을 모신 곤젠 신사가 당시에 위치하던 곳이 있습니다.

번소를 지나 길을 따라 이어진 길가에는 과거에 운송회사, 운반업체, 다양한 상점, 숙박시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길가 가게 앞을 흐르는 마에가와는 주민들과 여행자들에게 물 공급원이 되어주었습니다. 역사적인 거리에는 기와지붕과 격자창이 있는 전통적인 건물이 많이 남아 있어 역참마을로 번성했던 구마가와주쿠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